Generative model

2024.02.19

이은주

생성 모델

컴퓨터 비전에서의 이전 모델:

feature space상에서 찾고자 하는 label로 classifier

생성모델:

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고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는 유사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



Training samples $\sim p_{data}(x)$



Generated samples $\sim p_{model}(x)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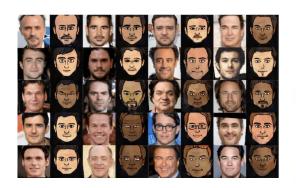
Want to learn $p_{model}(x)$ similar to $p_{data}(x)$

왜 생성모델이 필요한가?

1. Dataset 증가

Training set이 부족할 때 training data 증가. 최근 모델들은 많은 데이터셋 요구.

2. 다양한 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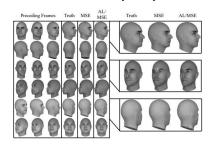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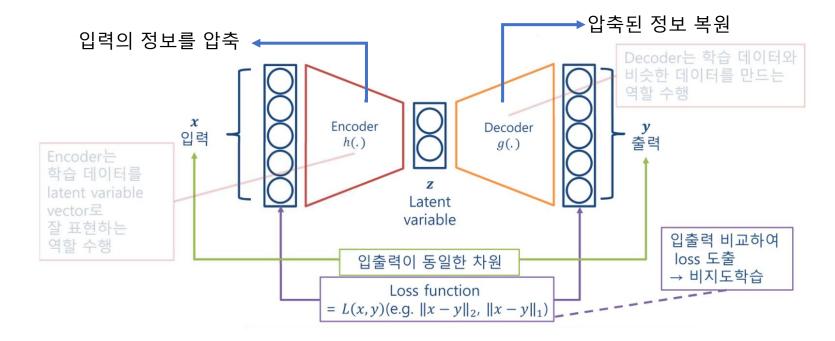


3. 동영상의 다음프레임 예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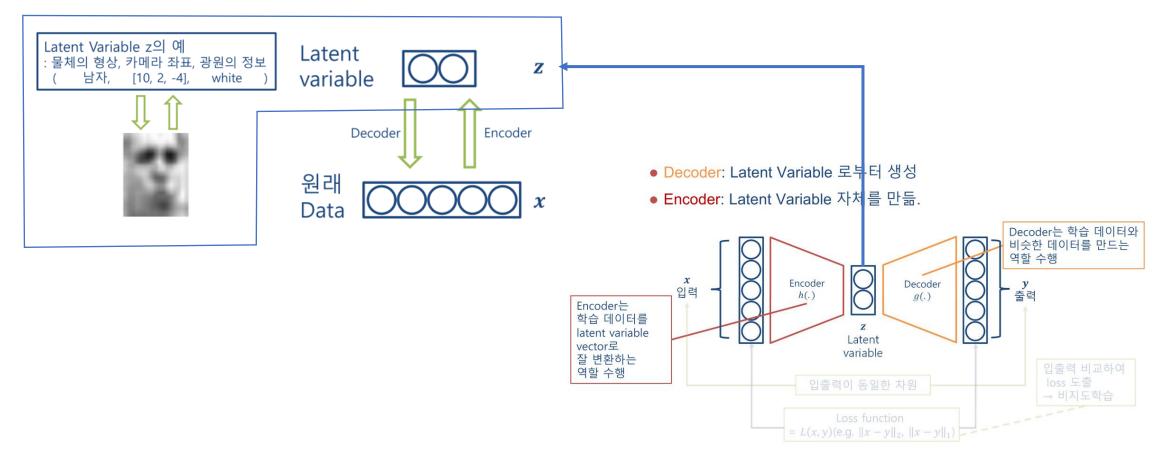


- 저차원의 representation z를 원본 x로부터 구하여 스스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
- Unsupervised Learning 방법
- 원본 데이터를 레이블로 활용(레이블 필요 x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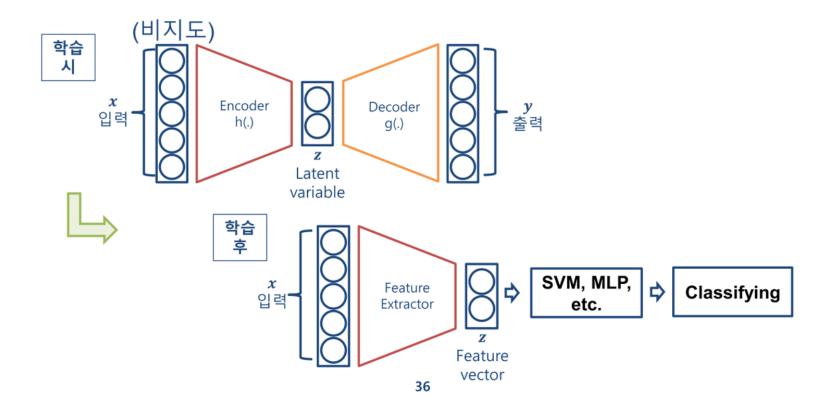
목적 : 차원 축소, Encoder를 학습하여 유용한 feature extractor로 사용.



Latent variable에 원본 데이터의 feature 정보가 저장 학습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변수이므로 Latent variable라 함.



AE의 응용 : 학습이 완료된 AE에서 Encoder와 Latent variable까지만 가져와 feature Z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머신러닝 Classifier와 섞어 사용



```
# 오토인코더 모듈 정의
class Autoencoder(nn.Module):
  def init (self):
    super(Autoencoder, self).__init__()
    self.encoder = nn.Sequential( # nn.Sequential을 사용해 encoder와 decoder 두 모듈로 묶어줍니다.
      nn.Linear(28*28, 128), #차원을 28*28에서 점차 줄여나갑니다.
      nn.ReLU(),
      nn.Linear(128, 64),
      nn.ReLU(),
      nn.Linear(64, 12),
      nn.ReLU().
      nn.Linear(12, 3), # 입력의 특징을 3차원으로 압축합니다 (출력값이 바로 잠재변수가 됩니다.)
    self.decoder = nn.Sequential(
      nn.Linear(3, 12), #디코더는 차원을 점차 28*28로 복원합니다.
      nn.ReLU(),
      nn.Linear(12, 64),
      nn.ReLU(),
      nn.Linear(64, 128),
      nn.ReLU(),
      nn.Linear(128, 28*28),
      nn.Sigmoid(), # 픽셀당 0과 1 사이로 값을 출력하는 sigmoid()함수를 추가합니다.
  def forward(self, x):
    encoded = self.encoder(x) # encoder는 encoded라는 잠재변수를 만들고
    decoded = self.decoder(encoded) # decoder를 통해 decoded라는 복원이미지를 만듭니다.
    return encoded, decoded
```

Encoder : 차원 축소

Decoder: 차원 복원

Epochs: 10

Batch size: 64

Adam optimizer

MSE Loss function

```
# 학습하기 위한 함수

def train(autoencoder, train_loader):
    autoencoder.train()
    for step, (x, label) in enumerate(train_loader):
        x = x.view(-1, 28*28).to(DEVICE)
        y = x.view(-1, 28*28).to(DEVICE) #x(입력)와 y(대상 레이블)모두 원본이미지(x)인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.
        label = label.to(DEVICE)

        encoded, decoded = autoencoder(x)

        loss = criterion(decoded, y) # decoded와 원본이미지(y) 사이의 평균제곱오차를 구합니다
        optimizer.zero_grad() #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초기화합니다.
        loss.backward() # 기울기를 구합니다.
        optimizer.step() #최적화를 진행합니다.
```

입력(x)과 라벨(y)모두 원본 이미지(x)이다.

```
for epoch in range(1, EPOCH+1):
  train(autoencoder, train_loader)
  # 앞서 시각화를 위해 남겨둔 5개의 이미지를 한 이폭만큼 학습을 마친 모델에 넣어 복원이미지를 만듭니다.
  test x = view data.to(DEVICE)
  _, decoded_data = autoencoder(test_x)
  # 원본과 디코딩 결과 비교해보기
  f, a = plt.subplots(2, 5, figsize=(5, 2))
  print("[Epoch {}]".format(epoch))
  for i in range(5):
    img = np.reshape(view_data.data.numpy()[i],(28, 28)) #파이토치 텐서를 넘파이로 변환합니다.
    a[0][i].imshow(img, cmap='gray')
    a[0][i].set_xticks(()); a[0][i].set_yticks(())
  for i in range(5):
    img = np.reshape(decoded_data.to("cpu").data.numpy()[i], (28, 28))
    # CUDA를 사용하면 모델 출력값이 GPU에 남아있으므로 .to("cpu") 함수로 일반메모리로 가져와 numpy행렬로 변환합니다
    # cpu를 사용할때에도 같은 코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.
    a[1][i].imshow(img, cmap='gray')
    a[1][i].set_xticks(()); a[1][i].set_yticks(())
  plt.show()
```

[Epoch 10]

